

초등학교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김영미¹, 박윤조^{2*}

¹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상담학과, ²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The Influence of Happiness Self-esteem on Media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Kim Young Mi¹, Yoon Joe Park^{2*}

¹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Counseling, Gukje Cyber University

²Department of Young Childcare Education and Welfare,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전반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과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한 국아동패널 10차년도(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38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9.38세 (SD=1.42)이었으며, 남아 702명과 여아 687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는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상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및 간접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복감과 미디어중독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아동의 미디어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학업수행,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켜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미디어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미디어기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among happiness, self-esteem, and media addiction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ata from 1,389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10th PSKC were used. The average age was 9.38 (SD=1.42), consisting of 702 boys and 687 girls. The survey data were analyzed using correlation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and mediation effect analysis with SPSS 21.0 and AMOS 18.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happiness and self-esteem negatively affected media addiction. Second, school adjustment partly mediated the links between happiness and media addiction. Third, school adjustment totally mediated the links between self-esteem and media addiction. Th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school adjustment in preventing children's media addiction.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need to develop school adaptation programs to improve happiness and self-esteem for third-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who have difficulty adapting to school. This could protect children from media addiction and help them grow into members of society who utilize media devices at an appropriate level.

Keywords : Happiness, Self-Esteem, School Adjustment, Media Addiction, Mediation Effect

*Corresponding Author : Yoon Joe Park(Yeosu Institute of Technology)

email: pridejo@hanmail.net

Received April 9,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May 24,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여성가족부(2019)에서 발표한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미디어 과의존 비율은 매년 감소하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교육과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 실제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과의존 위험군으로 진단되는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2020년부터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 치유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2].

미디어중독은 미디어 이용행위에 대한 집착, 금단 현상, 일상생활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한다. 아동의 미디어중독에 대해 다룬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미디어중독은 거북목 증후군, 수면장애 등 신체적 문제, 우울, 불안, 충동성 등 정서적 문제, 학교 부적응, 또래문제, 부모-자녀관계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3,4]. 특히, 현대사회의 아동은 디지털 네이브(digital natives) 세대로서 미디어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만 미디어기기 중독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사용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기에는 아직 미성숙하다. 또한 미디어기기의 사용 목적이 상호작용보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다[5,6].

이처럼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미디어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의 역할에 주목해볼 수 있다. 아동은 가족, 또래, 교사와의 일상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며 어린 시절에 경험한 행복감은 성인기 행복감의 초석이 되며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7]. 아동의 행복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적은 편이나 초등학생 아동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심리 특성이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등 미디어기기 중독에 위험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를 토대로 행복감이 미디어중독에 영향이 미칠 것임을 추론해볼 수 있다[8,9].

아동의 행복감에 대해 다룬 몇몇 연구들은 아동이 긍정적 정서 경험인 행복감을 많이 느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나 고위험군이 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하였다[10,11]. 이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일수록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대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미디어기기에 덜 몰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평가로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안정적으로 유지된다[13]. 이러한 자아존중감은 외부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중독 성향을 예방해준다고 알려져 있다[14]. Griffiths(2000)는 과도한 미디어의 사용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상하는 기제와 관련 있다고 하였으며 우수정(2018)은 자신에 대한 가치감과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인터넷이라는 가상현실로의 도피성향을 보인다고 하였다[15,16].

한편, 학교에서 아동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규칙을 습득해 나간다. 학령기 학교적응은 이후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력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되며 학교생활 부적응은 문제행동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17,18].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시기는 유아교육과정과의 연계 차원에서 통합교과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 학습 과목별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시기로 학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학업성취가 가시화됨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입학이나 초기 청소년기에 비해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19].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성공적인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개인 내적 변인이기도 하다.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를 잘 극복할 수 있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또래관계나 학업에서 직면한 문제를 잘 해결한다[20]. 또한 낙관적이고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아동은 자신과 주변의 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한다[21].

또한 자아존중감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를 보이며 성공적인 적응을 한다고 보고하였다[23,24]. 또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25]에 따르면, 프로그램 실시 이후 아동의 수업 참여율이 높아지고 학교적응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학교적응은 아동이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변

화시키기도 하고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는 적극적 과정이다[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환경과 개인 간 균형이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에 편안함을 느끼며 성공적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학업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실패경험으로 인한 자괴감이나 우울을 달래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하기 쉽다. 최근 초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미디어 환경에 주목하여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 미디어중독이 학교부적응을 가져온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반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다[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보호요인의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 미디어 중독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이 매개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Fig. 1.).

- 1)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 2) 아동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매개로 미디어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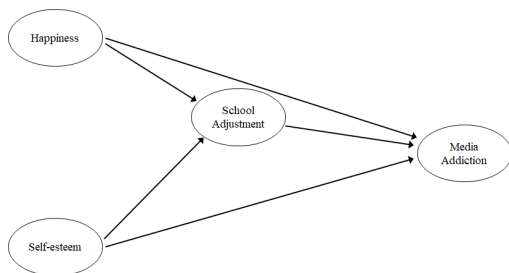


Fig. 1. Hypothesized Research Model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0차년도 자료(2017년)를 사용하였으며 총 1,620가구 중 미디어중독 척도에 응답한

1,389명을 분석에 사용하였다[27]. 아동의 평균 연령은 9.38세($SD=1.42$)이었으며 남아 702명(50.5%), 여아 687명(49.5%)이었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39.82세($SD=3.64$), 아버지 42.23세($SD=3.95$)이었으며 최종 학력은 부모 모두 4년제 대학교졸업이 가장 많았다(아버지 574명, 어머니 523명). 거주지역은 경인권이 444가구(32.0%)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49가구(17.9%), 대전/충청/강원권 205가구(14.8%), 서울권 159가구(11.4%), 대구/경북권 155가구(11.2%), 광주/전라권 177가구(12.7%) 순이었다.

2.2 연구 도구

2.2.1 행복감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CS(2008)의 질문지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활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8]. 아동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6개 영역(학업, 외모, 가족, 친구, 학교생활, 일상)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 대한 아동의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4이었다.

2.2.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MCS(2008)에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Self-Esteem Scale, RSE) 10문항을 아동의 연령에 맞게 축소하고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한 5문항을 사용하였다[29]. 아동이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5이었다.

2.2.3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대현과 지성애 (2006)가 개발한 초등학교 학교적응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조사 연구진이 사용하였다[30].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생활적응 11문항, 학업수행적응 11문항, 또래적응 8문항, 교사적응 5문항 등 총 35문항이었다. 각 항목에 대해 아동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담임교사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95, .94, .94, .83이었다.

2.2.4 미디어중독

미디어기기 중독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패널연구진 이 K-척도(인터넷중독 진단척도) 청소년 관찰용을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www.iapc.or.kr). 이 척도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일상생활장애 5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 등 총 13문항이었다. 어머니가 4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요인별 미디어중독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별 내적합치도는 .75, .44, .43이었다.

2.3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SPSS 21.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변인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와 Pearson 적률상관 계수를 산출하고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주요변인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넷째, 학교적응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 절차를 사용하여 .0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들에서 왜도의 절대값은 2미만, 첨도는 8미

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Pearson 상관분석 결과, 미디어중독은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적응과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학교적응은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은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129, p<.001)=1077.808$, RMSEA=.073, TLI=.891, CFI=.900으로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였다. 잠재변수에 대한 지표변수의 요인부하량은 .60~.91로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를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으로 가는 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적응에서 미디어중독으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학교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미디어중독 수준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둘째, 행복감에서 미디어중독으로의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미디어중독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셋째, 행복감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행복감이 높을수록 학교적응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에서 학교적응으로의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
| 1. Happiness | - | | | | | | | | |
| 2. Self-esteem | .63** | - | | | | | | | |
| 3. Academic activity | .14** | .05 | - | | | | | | |
| 4. School rule | .15** | .11** | .68** | - | | | | | |
| 5. Peer relationship | .16* | .08** | .73** | .78** | - | | | | |
| 6. Teacher relationship | .11** | .06* | .41** | .70** | .58** | - | | | |
| 7. Daily life disturbance | -.18** | -.11** | -.13** | -.12** | -.11** | -.06* | - | | |
| 8. Withdrawal | -.16** | -.09** | -.13** | -.11** | -.09** | -.07** | .63** | - | |
| 9. Tolerance | -.11** | -.09** | -.08** | -.10** | -.07* | -.06* | .63** | .59** | - |
| <i>M</i> | 3.32 | 3.47 | 4.24 | 4.01 | 4.10 | 4.07 | 1.45 | 1.76 | 1.48 |
| <i>SD</i> | .45 | .43 | .54 | .52 | .51 | .49 | .43 | .47 | .44 |
| <i>Skewness</i> | -.95 | -1.32 | -1.90 | -1.28 | -1.39 | -1.24 | 1.11 | .38 | .79 |
| <i>Kurtosis</i> | 1.51 | 2.85 | 6.38 | 5.10 | 5.35 | 5.16 | .98 | .46 | .79 |

* $p<.05$, ** $p<.01$

Table 2. Parameter estimation of the model

| Path | <i>b</i> | β | SE | C.R. |
|-------------------------------|---------------------|---------|-----|-------|
| Happiness → Adjustment | .44 ^{***} | .33 | .11 | 4.20 |
| Self-esteem → Adjustment | .22 [*] | .16 | .10 | 2.16 |
| Adjustment → Media addiction | -.09 ^{**} | -.10 | .03 | -3.08 |
| Happiness → Media addiction | -.35 ^{***} | -.30 | .10 | -3.65 |
| Self-esteem → Media addiction | -.14 | -.12 | .09 | -1.55 |

^{*}*p*<.05, ^{**}*p*<.01, ^{***}*p*<.001

3.3 매개모형 검증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아동의 행복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학교적응을 매개하여 미디어중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으나 학교적응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보였다. 즉,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Table 3. Direct and indirect effects

| Path | Direct | Indirect | Total |
|-------------------------------|---------------------|--------------------|---------------------|
| Happiness → Adjustment | .33 ^{***} | - | .33 ^{***} |
| Self-esteem → Adjustment | .16 [†] | - | .16 [†] |
| Adjustment → Media addiction | -.10 ^{**} | - | -.10 ^{**} |
| Happiness → Media addiction | -.30 ^{***} | -.03 ^{**} | -.33 ^{***} |
| Self-esteem → Media addiction | -.12 | -.02 [†] | -.14 [†] |

[†]*p*<.05, ^{**}*p*<.01, ^{***}*p*<.001

4.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의 10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행복감,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미디어중독 간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미디어기기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간의 부적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33,34]. 이러한 결과는 주관적 행복감이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개인 내적 특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등학교 3학년은 학업의 양이 증가되고 학업성취가 가시화되는 시기로 학교적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행복하지 않은 아동보다 스트레스에 직면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며 학습과제와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처한다[19]. 또한 행복한 아동은 자신감이 넘치고 낙천적으로 사고하며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가진다[31]. 이처럼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아동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잘 적응하며 미디어중독으로 빠질 위험이 낮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연구들은 아동의 행복감보다는 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결과는 미디어중독과 관련하여 긍정적 심리적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학문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은 미디어중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미디어기기 중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령기는 근면성을 획득하는 시기로 과제해결이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통해 유능감을 경험하며 발달과업을 수행한다. 근면성 획득에 실패하여 열등감을 지니게 된 아동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며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개인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을 예측하지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추론해볼 수 있다.

먼저, 낮은 자아존중감이 미디어중독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을 설명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미디어중독 수준을 일반군,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26,3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미디어중독 수준을 나누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용 인터넷중독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측정도구 문항에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밤을 새워 사용하거나 가족과 싸운다는 내용은 청소년보다 일상에서 부모의 관리감독을 더 받는 초등학생에게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5,6]. 따라서 추후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중독 측정도구로 평가하고 사용자군 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청소년 집단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적응은 행복감과 미디어중독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미디어중독의 관계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행복감과 미디어중독 간의 관계에서 학교적응의 간접효과는 긍정적 정서를 포함한 행복감이 높은 아동은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며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행복감이 낮은 아동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며 미디어기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업수행뿐만 아니라 친구 및 교사와 지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갈등을 해결해가며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킨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은 학교 학습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학력이 형성되는 시점이며, 자신의 평가결과와 또래의 평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시기이다. 아동의 낮은 행복감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학업수행, 학교생활을 저해하여 학교적응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하게 하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과의존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학교적응은 미디어중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중요한 변인 이므로 미디어사용 수준이 높은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적응을 도와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아존중감은 학교적응을 위한 매개로 미디어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 자신에 대해 유능하고 가치있다고 여기는 아동은 친구, 부모,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다양한 어려움이나 스트레스를 이겨내어 학교에 잘 적응하며 미디어기기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자아존중감 형성은 아동기 주요 발달과업 중 하나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교적응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약26%인 것으로 나타났다[20]. 사회화 과정의 대행자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해낸 아동은 인지, 사회, 정서 등 다양한 발달영역에서 긍정적 경험을 하며 미디어에 의존할 확률이 낮아진다.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불만족으로 상실감과 무력감을 느끼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현실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가상세계로 도피하여 위안을 찾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할 가능성을 높인다[15,16]. 이러한 결과는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초등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증진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미디어기기 중독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기기 과의존 위험군의 진단 연령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여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의 개인 내적 특성과 학교적응이 미디어기기 중독으로부터 보호요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디어기기 중독 예방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미디어기기 사용이 익숙한 디지

털 네이티브 세대의 학령기 아동이 미디어기기를 적절한 수준에서 잘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9). 2019 Internet Smartphone usage habit diagnosis surve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Retrieved from : <http://www.mogef.go.kr>
- [2]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 (2020). Internet Smartphone addiction prevention and resolution project. Korea Youth Counseling and Welfare Institute. Retrieved from : <http://www.kyci.or.kr>
- [3] T. Gupta, "Smart generation with smartphone hooked to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Indian Association for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Vol.15, no.3, pp.90-98, Jul.2019.
- [4] M. M. Skoric, L. L. C. Teo, R. L. Neo, "Children and video games: addiction, engagement, and scholastic achievement",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Vol.12, no.5, pp.567-572, Oct.2009. DOI: <https://doi.org/10.1089/cpb.2009.0079>
- [5] J. M. Kim, E. A. Choi,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peer attachment, media usage time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on media addiction", *Journal of Children's Media and Education*, Vol.18, no.4, pp.197-225, Dec.2019.
- [6] A. R. Tarullo, J. Obradovic, M. R. Gunnar, "Self-control and the developing brain", *Zero to Three*, Vol.29, no.3, pp.31-37, Jan.2009.
- [7] Y. Yang,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73, no.2, pp.204-226, April.2008. DOI: <https://doi.org/10.1177/000312240807300202>
- [8] E. J. Kim, "The effect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on self-esteem and delinquency mediated internet game addiction of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28, no.3, pp.96-122, Aug.2015.
- [9] J. Park, H. Park, "The effects of children's loneliness and stress-coping behaviors on internet game addiction-A focus on gender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Vol.17, no.2, pp.179-182, May.2014.
- [10] D. C. Hull, G. A. Williams, M. D. Griffiths, "Video game characteristics, happiness and flow as predictors of addiction among video game players: A pilot study", *Journal of Behavioral Addictions*, Vol.2, no.3, pp.145-152, Sep.2013.

- DOI: <https://doi.org/10.1556/jba.2.2013.005>
- [11] H. M. Lee, Y. J. Han,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of children's happiness and media device addi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happiness and children's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1, no.5, pp.85-98, Oct.2020.
DOI: <https://doi.org/10.5723/kics.2020.41.5.85>
- [12] B. Park, J. U. Noh,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on media device addiction", *Korean Journal Child Studies*, Vol.40, no.3, pp.87-103, June.2019.
DOI: <https://doi.org/10.5723/kics.2019.40.3.87>
- [13] K. H. Trzesniewski, M. B. Donnellan, R. W. Robins, "Stability of self-esteem across the life spa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no.1, pp.205-220, Jan.2003.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84.1.205>
- [14] B. Aydm, S. V. Sa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s: the role of self-esteem",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Vol. 15, pp. 3500-3505, 2011.
DOI: <https://doi.org/10.1016/i.sbspro.2011.04.325>
- [15] M. Griffiths, "Internet addiction-time to be taken seriously?", *Addiction Research*, Vol.8, no.5, pp.413-418, Jul.2000.
DOI: <https://doi.org/10.3109/16066350009005587>
- [16] S. J. Woo,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self-esteem on internet addiction",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 pp.771-786, Feb.2018.
- [17] J. B. Kupersmidt, J. D. Coie,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61, no. 5, pp. 1350-1362, Oct. 1990.
DOI: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0.tb02866.x>
- [18] S. Ahn, B. Kang, K.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duration of media use, behavior problems,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8, no.2, pp.191-204, Apr.2017.
DOI: <https://doi.org/10.5723/kics.2017.38.2.191>
- [19] B. P. Ackerman, E. D. Brown, C. E. Izard, "The relations between contextual risk, earned income, and the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from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Vol.40, no.2, pp.204-216, Mar.2004.
DOI: <https://doi.org/10.1037/0012-1649.40.2.204>
- [20] H. Suh, S. Rho,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10, no.4, pp.55-70. Dec.2018.
- [21] S. Shin, "The dual mediation effect of self-worth and resilience with respect to effects of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children on school life adjust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4, no.2, pp.265-380, May.2015.
-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5.24.2.15>
- [22] Y. Kim,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olicy*, Vol.14, no.2, pp.55-74, Sep.2020.
DOI: <https://doi.org/10.5718/kcep.2020.14.2.55>
- [23] N. Yoon, N. Shin, "The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al expectations,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n school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5, no.3, pp.157-176, June.2014.
DOI: <https://doi.org/10.5723/KJCS.2014.35.3.157>
- [24] H. J. Kwon, M. Y. Sung, "The effects of children's self-esteem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peer attach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52, no.4, pp.395-403, Aug.2014.
DOI: <https://doi.org/10.6115/fer.2014.034>
- [25] E. P. Smith, K. Walker, L. Fields, C. Brookins, R. C. Seay, "Ethnic identity and its relationship to self-esteem, perceived efficacy and prosocial attitudes in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Vol.22, no.6, pp.867-880, Dec.1999.
DOI: <https://doi.org/10.1006/jado.1999.0281>
- [26] K. N.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media device addiction, school adjustment and children's happines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1, no.4, pp.925-949. Feb.2021.
- [27]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2018). The tenth wave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Data file and code book]. Retrieved from : <http://panel.kicce.re.kr/kor/publication/08.jsp>.
- [28] MCS (2008). MCS Child Paper Self Completion Questionnaire. Retrieved from : <http://www.cls.ioe.ac.uk>
- [29] M. Rosenberg,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USA, 1965.
- [30] D. H. Jung, S. A. Chi, "A study of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er interactions, child-teacher relationships, multiple intelligences, and elementary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6, no.3, pp.201-221. Jun.2006.
- [31] Y. J. Park, Y. M. Kim, H. N. Song,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school adaptation: Mediating the effects of children's peer attachment",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Vol.8, No.2, pp.1-24. Oct.2019.
DOI: <https://doi.org/10.20497/jwce.2019.8.2.1>
- [32] C. Peterson, W. Ruch, U. Beermann, N. Park, M. E. P. Seligman, "Strengths of character,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Vol.2, no.3, pp.149-156. Oct.2007.
DOI: <https://doi.org/10.1080/17439760701228938>
- [33] S. Kim, S. M. Cheon, E. M. Cho, J. S. Kim, M. S. Jin,

"Relationship between family health and smart phone addiction perceived by the elementary students in the upper grades: The mediating effects of interpersonal satisfac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34, no.3, pp.165-183. Nov.2018.

- [34] B. Park, J. U. Noh,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and children's happiness on media device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40, no.3, pp.87-103. June.2019.
DOI: <https://doi.org/10.5723/kics.2019.40.3.87>
- [35] H-W. Weon, G-Y. Kim, Y-J. Kim, J-S. Hwang, H-Y.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self-regulation using quantitative EEG i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Vol.21, No.9, pp.536-547. Sep.2020.
DOI: <https://doi.org/10.5762/KAIS.2020.21.9.536>
- [36] S-W. Choi, S-H. Kim, "Influence of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on addiction to smart phone: Mediation effect brought in by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12, no.3, pp.365-383. Dec.2015.

김 영 미(Kim Young Mi)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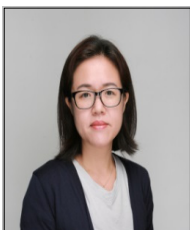
- 2019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 (철학박사)
- 2021년 3월 ~ 현재 : 국제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상담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심리, 부모-자녀관계

박 윤 조(Yoon-Joe Park)

[정회원]



- 2018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재개발학과 (인재개발학 박사)
- 2010년 3월 ~ 2014년 12월 : 동남보건대학교 보육과 겸임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여주시보육정책위원회 위원장
- 2017년 3월 ~ 현재 : 여주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관심분야>

영유아문제행동 및 심리, 스트레스 및 대처행동